

"날로 새롭게 변하는 것을 위대한 덕"(『주역』)이라 했던가.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새롭게 변신시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한다. 특히 예술가의 경우 그러한 모습을 보면 심지어 숭고하기까지 하고, 또한 그러한 자취로서 작품을 마주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즐거움의 경지에 이른다. 이것은 작품의 좋고 나쁨의 외부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일관되게 보여주는 생명의 힘을 의미한다.

작가에게 생명적 힘은 연속과 새로움으로 되어 있다. 동양예술의 개념으로 말하면 법(法)과 변(變)이며,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보편성과 개별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대상과 나, 안과 밖의 관계를 형성한다. 작가에게서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포괄하여 제시하는 주제는 '길'이다. 작가의 '길'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구도자의 길'과 같은 종교적인 의미, '인생길'과 같은 삶의 여정, '고갯길'과 같은 자연풍경. 그녀의 작품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여 있되, 자연풍경이 언제나 중심을 이룬다. 다만 자연풍경에 다른 두 요소가 어떤 색조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작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전의 1회 개인전에서 '길'은 인생의 여정을 자연의 길로 투영시켰다.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작행위의 흔적이다. "수없이 덧칠된 물감을 지워내고 그 비워진 공간에 길의 흔적을 남기며, 무언가를 그리고 다시 닦아내고 하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불확실한 삶의 길을 형상화하는(99'SEAF 작가노트)" 것 그 자체였다. 수많은 교차된 인생여정을 여러 행위의 반복으로 실현하고 그 결과로서 작품을 전시한 것이다. 물론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난 선은 자연의 형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행위는 작가에게서 구체적으로 경험된 과거의 것이었기에, 이에 상응하는 표현은 감정적이며 무규정적이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전체적인 행위를 하나로 응집시켰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다. 여기에 인생에 대한 '관조'와 '구원'이라는 자신의 물음을 던져 놓았다. '관조'는 연작된 대작에서 시도되었고, '구원'은 여러 소품으로 독립적으로 또는 연작 시리즈로 제작된 작품에서 보여준다. 언뜻 보기에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현재의 작가의 실존과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작품에 스며들어 있는 정조(情調)에 따라 하나는 '검은 그림'으로, 다른 하나는 '밝은 그림'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검은 그림'은 허무적이고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이와 관조로서, "오묘하고 또한 오묘한(『노자』)" 맛을 지닌다. 이전의 개인전에서 다소 모호하고 분절적인 인생 길은 이번에는 자연 경계로 바뀌었다. 인생에 대한 작가의 성찰이 자연 경계로 옮겨놓아진 것이다. 거기에는 깊이가 있다. 정감이 있다. 마을, 길, 호수, 언덕, 고개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가 등장한다. 이것은 평범한 소재이지만, 평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보편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다고 쉽게 참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에게 시간의 흐름, 의식의 흐름 속에서 강하게 인상으로 남아 있는 경험을 묶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자연소재의 보편성과 작가의 주관성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작가는 이를 위해 자연의 대상을 단순화하고 왜곡하고 과장하여 자연의 형상을 최소한으로 남겨놓은 반면에, 오히려 자연의 대상 안에 작가의 인생 길에 대한 관념을 최대한으로 투영시켜 놓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때로는 땅과 생명을 상징하는 마대를 오브제화 하였는데, 이것은 유기적 형태와 강직한 노란 직선과 함께 인생의 길을 자연의 경계로 바꾸어 놓는 데 일조를 한다.

인생은 수많은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경험에는 감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인생은 수많은 감정을 함축하는 정조를 띤다. 감정은 처음에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지만 그 감정이 누적된 인생에 대한 정조는 보편적이고 철학적이다. 작가가 이를 위해 전통적인 용묵에 유난히 애착을 보인다. 동양화라서가 아니라 작가의 인생에 대한 정조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바로 개별적인 색이 아니라 모든 개별적 색이 함축되고 있는 색 그래서 '오색'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현묵(玄墨)을 반복적으로 칠함으로써, 시간적 지속에 따라 누적되어

가는 수많은 작가의 개인적 감정을 스며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될수록 감성은 풍부하여지고 깊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인생의 보편적 삶에 대한 정조로 점차적으로 승화되어 간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조형성에서 전통산수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밝은 그림’은 또 다른 작가의 실존을 나타낸다. ‘검은 그림’에서 구현되는 인생의 관조와는 달리 종교적 구원과 귀의가 주제이다. 관조와 구원, 이 상반된 요소가 어떻게 한 작가에게 양립될 수 있을까. 이것은 동양인으로서의 감성적 삶과 개인적 종교와의 균형에서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작업은 99’SEAF에서부터 보여온 것으로서 “절대가치를 향하여 맴돌고 있는 나의 길을 주제로 담아 본 것이다(99’SEAF 작가노트).” 이 때에는 몇 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작가에서 갖는 위상을 알 수 없었다. 이번 개인전에서 앞의 ‘검은 그림’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분명하게 된 것이다. 바로 종교적 신앙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는 이러한 작품은 하면 심리적으로 편안하다고 한다. 작품은 주로 마대와 한지를 붙이면서 전체적으로 기하학적 형태의 구성적인 면을 강조시켰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정지되어 있고 현실적 긴장이 없는 신에 대한 조형이며, 밝은 분위기는 기독교적인 빛을 상징한다. 수묵담채를 은은하게 하면서 따사로운 인간적 감정을 감돌게 하고, 그 위에 여러 혼합 재료, 특히 연필이나 목탄 또는 수묵으로 드로잉 하거나 얼룩지게 하였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작가 자신의 길을 상징한다. 즉 전체적으로 절대적 신에게 귀의된 작가의 편안한 안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제작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난다. 이 드로잉 작업은 처음에는 절대조형에서 나약한 감은 있었지만, 차츰 강직한 선과 대담한 묘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강해져 가는 것이다. 조형적으로 확신에 차가는 모습이다. 이것은 바로 ‘검은 그림’의 성숙과 함께 인생의 관조를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작가 자신도 이번 개인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필자가 서두에서 『주역』의 “위대한 덕”을 거론한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전개시켜 나가는 작가의 참그림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은 그림’에서의 치열함과 ‘밝은 그림’에서의 심리적 편안함이 결합하여 총체적인 승화로 나아갔으면 한다.